

강력해지고 진화하는 AI 세계 변화 속도 빨라진다

지난 한 주 AI 모델 잇단 출시

챗GPT 새 버전·'AI 핀' 등 눈길

인공지능(AI)이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시선을 끌고 있다. 오픈 AI가 개발한 생성형 AI인 챗 GPT가 지난해 11월 출시된 이후 한층 진화한 AI 모델이 지난 한 주간 잇따라 출시되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오픈AI는 지난 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첫 개발자 회의를 열고 최신 AI 모델인 'GPT-4 터보(Turbo)'를 선보였다.

이는 기존 GPT-4보다 업그레이드 오픈AI의 최신 모델로, 올해 4월까지의 정보가 담겼으며 300쪽에 달하는 책 한 권 분량을 입력하고, 요약 할 수 있다. 이전 버전에서는 약 3000 단어까지만 입력할 수 있었다.

최신 이미지 생성 AI인 '달리 3'(DALL-E 3)의 이미지와 텍스트-음성 변환도 지원한다.

오픈AI는 또 누구나 쉽게 맞춤형 챗봇을 만들 수 있는 서비스인 'GPTs'도 공개하고 이를 사고 팔 수 있는 앱스토어 같은 'GPT 스토어'를 출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챗GPT를 이용하는 기업과 개발자가 자신들의 데이터를 업로드해 특정 분야와 사용 사례에 맞게 챗봇을 교육하고 사용해야 했던 것과 달리, GPTs는 추가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코드의 도움 없이도 누구나 특정 작업에 맞는 챗봇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오픈AI는 "새로운 옵션을 통해 이용자는 자녀에게 수학을 가르치거나 보드게임의 규칙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신만의 특수 버전을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일에는 스마트폰을 대신할 AI 모델이 나

왔다. 스마트폰처럼 손에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옷깃에 붙여 사용하는 기가다.

애플 디자이너 출신 부부가 설립한 AI 스타트업 휴메인(Humane)은 명함 정도 크기의 디바이스로 옷에 자석으로 고정하는 AI 비서인 'AI 핀'을 공개했다.

AI 핀은 스크린이 없이 음성과 터치로 통해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낼 수 있고, 손바닥을 갖다 대면 기기에서 나오는 레이저를 통해 스크린이 나타난다.

전화가 오는 경우에도 손을 가까이 대면 누구에게 전화가 왔는지 나오고 음식을 가까이 대고 칼로리를 몰으면 음성으로 정확하게 답해 준다.

스마트폰의 기능을 대부분 옷에 붙이는 기기로 옮긴 것으로, 스마트폰 시대를 종식할 AI로 주목 받고 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설립한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가 첫 번째 AI 챗봇인 '그록(Grok)'을 공개했다.

지난 7월 xAI 설립 이후 약 4개월 만에 선보인 '그록'은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다. 머스크가 소유한 SNS 플랫폼 엑스(X) 계정에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그록은 거의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고 약간의 재치로 대답하도록 설계됐다. 약간의 반항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는 점도 기존 AI 챗봇과는 다르다.

CNN 방송은 이런 AI 기술의 잇따른 출시에 "챗 GPT가 지난해 11월 출시된 이후 AI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한 주였다"고 평가했다.

테크 정보 기업인 ABI 리서치의 ABI 리서치의 리스 헤이트 분석가는 "지난주는 AI에 있어 엄청난 한 주였다"며 "이는 AI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2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은 가자지구 칸 유니스 주민들이 파괴된 건물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고 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7일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쟁이 시작된 이후 가자지구 측 사망자는 1만 명에 달한다. /연합뉴스

이스라엘 강공 지속...가자지구 의료참사 현실화

의약품·전력 중단 잇단 영아 사망

알-시파·알-쿠드스 병원 운영 중단

연일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포격과 의약품 및 전력 공급 중단으로 인해 가자지구 최대병원에서 미숙아들이 숨지는 등 의료참사가 현실화했다.

국제사회가 인도주의적 지원 허용과 교전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이스라엘은 강공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민간인 피해는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가자지구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로 큰 병원인 알-시파 병원과 알-쿠드스 병원이 이날부터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알-시파 병원은 전날부터 연료가 바닥나면서 인큐베이터에 있던 2명의 미숙아를 포함해 5명이 숨진 끝에 이날 운영을 중단했다.

토마스 델라 톱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대변인은 "알-쿠드스 병원은 지난 6-7일간 세상과

단절됐다.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알-시파 병원에서는 약 40명의 조산아가 최소한의 난방용 전기를 활용해 인큐베이터 대신 일반 침대를 쓰고 있는 상황으로, 이곳 의사는 "날이 갈수록 아기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알-시파 병원에서는 시설관리 직원이 건물 내에서 총에 맞았고, 창가에 있던 다른 관계자도 총격을 당했다고 WSJ은 전했다.

이곳 병원에서 활동 중인 국경 없는 의사회 소속 의사인 모하메드 오베이드는 "600명에 달하는 입원 환자를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다는 보장을 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팔레스타인 관계자는 이날 알-시파 병원의 상황을 이유로 이스라엘과의 인질 석방 협상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37개 유엔 기관은 전쟁 발발 이후 지난 36일간 가자지구 의료시설이 최소 137회 공격받았고, 이로 인해 의료진 사망자 16명과 부상자 38명을 포함해 521명이 숨지고 686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

엘에 대해 인도주의적 전투 중단, 가자지구 지원 허용, 의료시설 상황 개선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스라엘은 의료시설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하는 한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민간인을 방패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병원 주변 및 지하에 지휘소를 세웠으며, 자국민 등 인질 약 200명을 구출하기 위한 군사작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 CNN과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군이 민간인 대피를 위한 안전 대피로를 마련했다면서 "병원에서 환자들을 데리고 나오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에서는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13명이 숨졌으며, 가자지구 북부 알-샤티 난민촌 주변에서도 전투가 이어졌다고 팔레스타인 관계자 및 주민들이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알-샤티 지역에서 무장세력 다수를 사살했다고 밝히고 주민들에 대해 남쪽으로 대피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연합뉴스

기후 활동가 튜베리 팔레스타인 지지 호소

스웨덴의 기후 활동가 그레타 튜베리(20)가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에서 열린 대규모 환경 집회에서 기후 위기 해결을 촉구하면서 팔레스타인 지지를 호소했다.

AFP, dpa 통신 등에 따르면 튜베리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약 3주 앞둔 이날 암스테르담에서 옥스팜, 그린피스 등

환경 단체가 주관한 기후 집회에 참여했다.

주최 측은 당시 집회에 약 7만 명이 모였다면서 이는 네덜란드에서 열린 사상 최대 규모의 기후 행진이었다고 밝혔다.

튜베리는 이날 연설에서 "우리는 재앙 직전에 있는 게 아니라 재앙 속에 살고 있다"면서 "기후 위기 최전선에 있는 이들은 수십년간 그 결과를 직접

경험했고 이를 경고해왔으나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는 발언도 내놨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기습에 '피의 보복'을 선언하고 한달 넘게 가자지구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튜베리는 "기후 운동가로서 우리는 억압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국제적 연대 없이는 기후 정의도 없다"면서 가자지구 주민과 연대를 강조했다. /연합뉴스

타이태닉 메뉴판 1억3000만원 낙찰

침몰 3일전 저녁 제공 음식 목록

타이태닉호가 지난 1912년 4월 침몰하기 3일 전 일등석 승객이 먹은 저녁 만찬 음식이 적힌 메뉴판이 경매에서 8만 3000 파운드(약 1억 3000만원)에 팔렸다.

13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 11일(현지시간) 영국 경매업체 '헨리 알드리지 앤드 손'이 주관한 경매에서 1912년 4월 11일 저녁 타이태닉호 일등석 승객에게 제공된 메뉴판이 8만 3000 파운드에 낙찰됐다.

당시 저녁 만찬은 타이태닉호가 아일랜드 퀸스타운을 떠나 뉴욕으로 향하던 날 진행됐다.

타이태닉호는 그로부터 3일 후인 1912년 4월

14일 북대서양 한복판에서 침몰했다.

해당 메뉴판에는 굴, 연어, 소고기, 새끼 비둘기, 오리, 닭고기, 이어 쌀과 파스타로 만든 푸레까지 다양한 요리가 적혀 있다.

당시 디저트는 빅토리아 푸딩과 아이스크림 등이 제공됐다. 빅토리아 푸딩은 밀가루, 브랜디, 사과, 체리 등 재료와 향신료를 섞어서 만든 요리다.

메뉴판 상단 가운데는 타이태닉호를 만든 선박회사 화이트스타라인 로고가 그려져 있다. 또 종이 곳곳에는 물에 얼룩진 흔적이 남아 있다.

이 메뉴판은 캐나다 노바스코샤 출신 역사학자 렌 스티븐슨이 소장하고 있던 1960년대 사진 앨범에서 발견됐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연합뉴스



튼튼한 금융의 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7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